

‘인구감소’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인구감소’ 현실에 대한 인식

- _ ‘인구감소’, 평소 ‘관심 있다’ 71%로 높은 수준
- _ ‘인구감소’가 미칠 영향, ‘부정적’
- _ ‘인구감소’ 영향, 4060세대가 더 부정적으로 생각
- _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부정적’

■ ‘기후변화’ 대비 ‘인구감소’ 중요도

- _ 국민들, ‘인구감소’보다 ‘기후변화’ 더 중요하다고 생각
- _ ‘남자 2030 + 5060세대’ vs ‘여자 2030 + 40대’ 대비돼
- _ PK 외 전 지역, ‘국가전체’ 측면 ‘인구감소 더 중요’ 생각

■ ‘인구감소’ 요인별 심각성 평가와 현실적 대안

- _ ‘지방소멸’, ‘공적연금 부실화’, ‘세금부담 증가’ 우려 커
- _ 2030세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대비 ‘심각하지 않다’ 인식
- _ 5060세대 ‘심각성’ 강하고, 40대 상대적으로 약해
- _ 서울과 PK ‘심각성’ 상대적으로 약하고, 다른 지역 강해
- _ 인구감소 따른 노동력 부족 대안, ‘출산장려’와 ‘정년연장’

■ ‘지방 인구감소’ 현실 인식

- _ ‘지방 인구감소’, 평소 ‘관심 있다’ 70%
- _ 4060세대의 ‘지방 인구감소’ 영향 더 부정적
- _ ‘수도권 + PK’ vs ‘충청 + 호남 + TK’ 대비돼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9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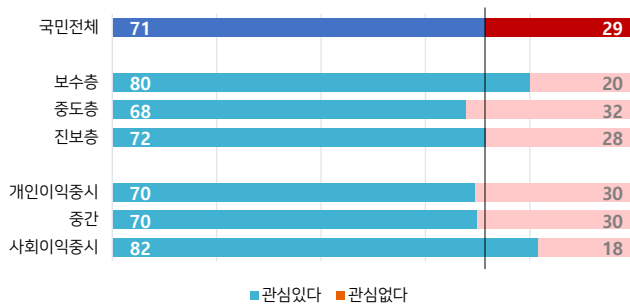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인구감소' 현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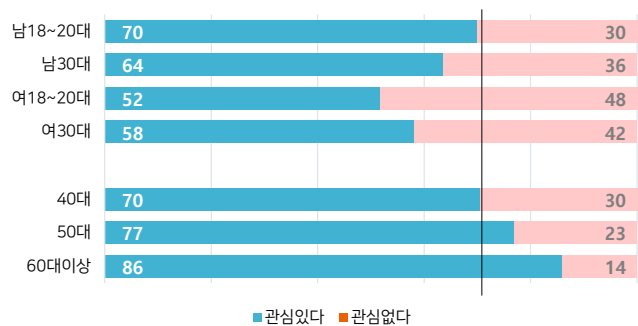
□ '인구감소', 평소 '관심 있다' 71%로 높은 수준

- 우리 국민들은 평소, '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 중 71%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관심 없다'는 응답은 29%로 조사됨
 -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우리나라 '인구감소'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관심 있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사회이익 중시층 △5060세대 등임
- '관심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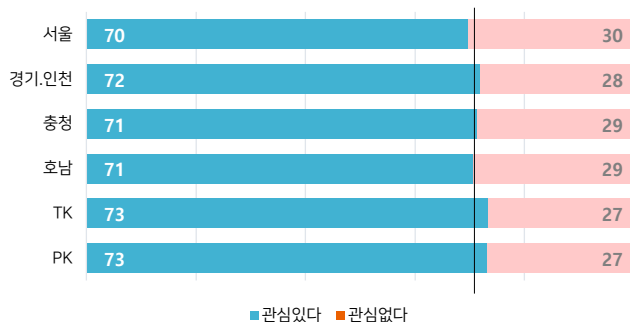
'인구감소' 관심도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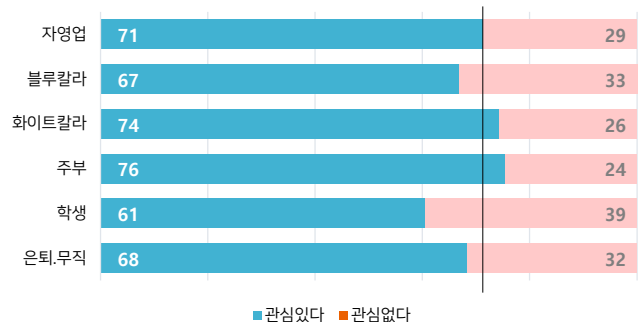
'인구감소' 관심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인구감소' 관심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인구감소' 관심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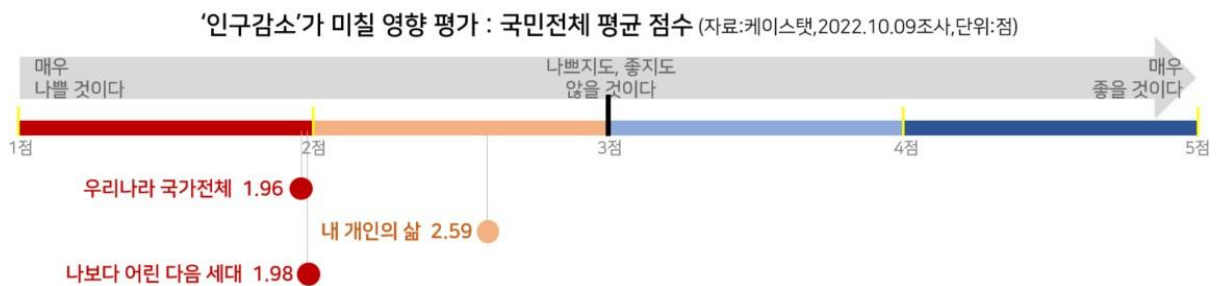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1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함
 - : 통계청 '202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는 2020년보다 9천명 줄어들었습니다
 - : 연평균 인구성장률 역시 -0.2%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 ☑ 현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30년 뒤인 2050년 42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50년 뒤인 2070년에는 3800만명 이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러한 이유로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 우리 국민들 역시 '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구감소'가 미칠 영향, '부정적'

- 우리 국민들은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국가전체'는 물론, '내 개인의 삶',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우리나라 국가전체'는 1.96점이고,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는 1.98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매우 나쁠 것'에 해당함
 -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와 선생님 개인의 삶, 그리고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매우 나쁠 것이다' 1점에서 '매우 좋을 것이다' 5점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임
- '내 개인의 삶'은 2.59점으로, 앞서 점수보다 높지만 이 역시 '다소 나쁠 것이다'에 해당하는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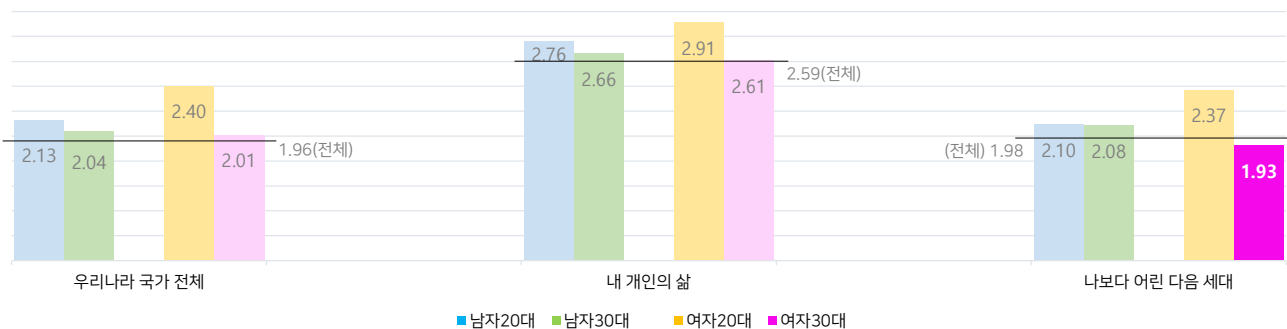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불안한 것으로 조사됨
 - : 국가전체적으로나 개인적 삶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 '내 개인의 삶', 즉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이 주목됨
 - : 이는 '인구감소' 아젠다의 특징인, '문제는 지금 만들어지지만, 드러나는 것은 20~30년 후'라는 큰 시차 때문에 당장 내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임
 - : '지금 현재의 나와 우리 세대'에 미치는 영향보다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됨
- ☑ 한편, '인구감소'의 다른 측면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국민의 94%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함(모름·무응답 1%)
 - : 자료, NBS 2022년 6월 5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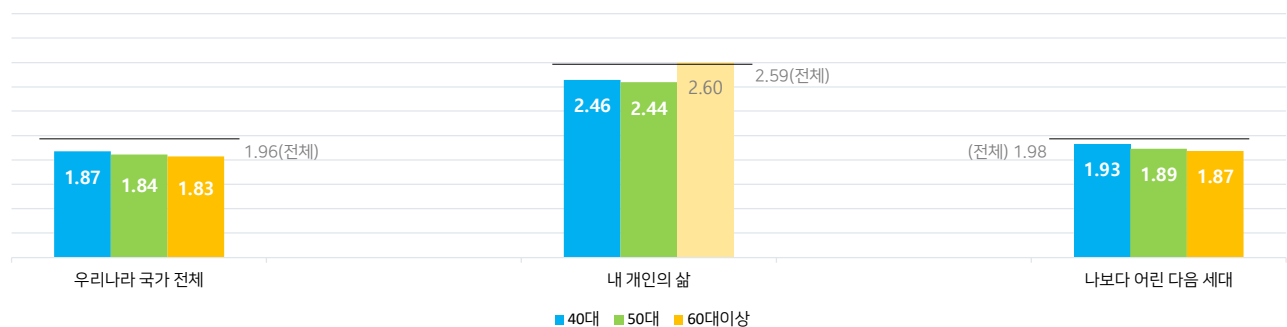
□ '인구감소' 영향, 4060세대가 더 부정적으로 생각

- '인구감소' 영향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대가 3.0점(나쁘지도, 좋지도 않을 것) 미만의 부정적 점수를 기록함
- 세부적으로는 2030세대에 비해 4050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더 두드러짐
 - 4060세대는 거의 모든 영역(국가, 내 개인, 다음 세대)에 대해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평점)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평점이며,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으면 옅은 색 막대이고, 낮으면 짙은 색 막대로 표시함
- 2030세대는 거의 대부분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냄
 - 특히 20대 여성의 점수가 모든 영역에 걸쳐 가장 높음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점)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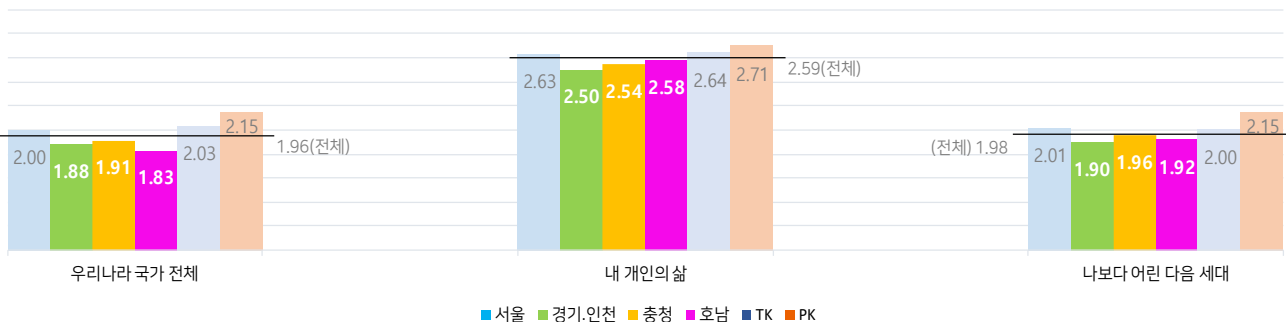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
 - : 모든 세대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2030세대는 '덜 부정적'이고 4060세대는 '더 부정적'임
- ☑ '인구감소'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 향후 20~30년 후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지금의 2030세대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2030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20~30년 후에, 이들 세대는 부양해야 할 고령층 인구는 많고, 다음 세대 인구는 적은 이중고에 처하게 됨
 - : 그런데도 4060세대보다 '덜 부정적'인 것은 당장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 미래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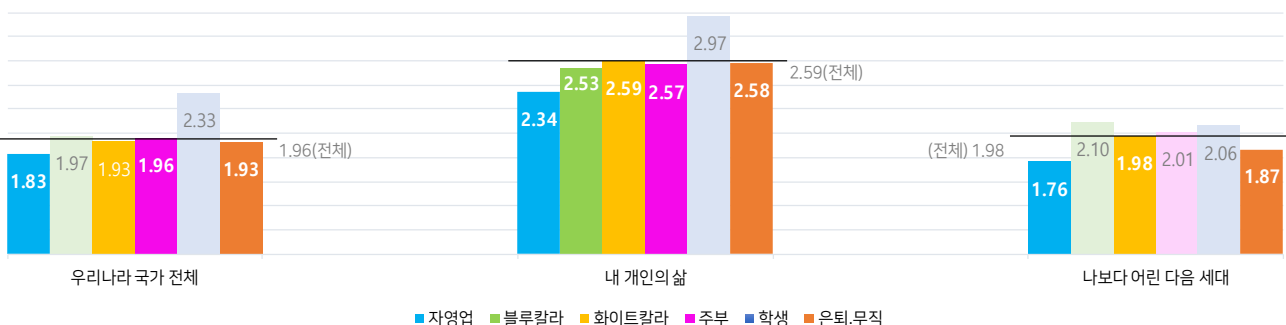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부정적'

- '인구감소'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기.인천지역의 평점이 '더 부정적'이고, 충청과 호남지역 평점도 부정적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평점이며,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으면 옅은 색 막대이고, 낮으면 짙은 색 막대로 표시함
 - 또한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평점임
- 서울과 TK, PK 지역의 평점은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특히 PK 지역의 평점이 모든 영역에 걸쳐 가장 높음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평점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고, 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음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10.09조사,단위:점)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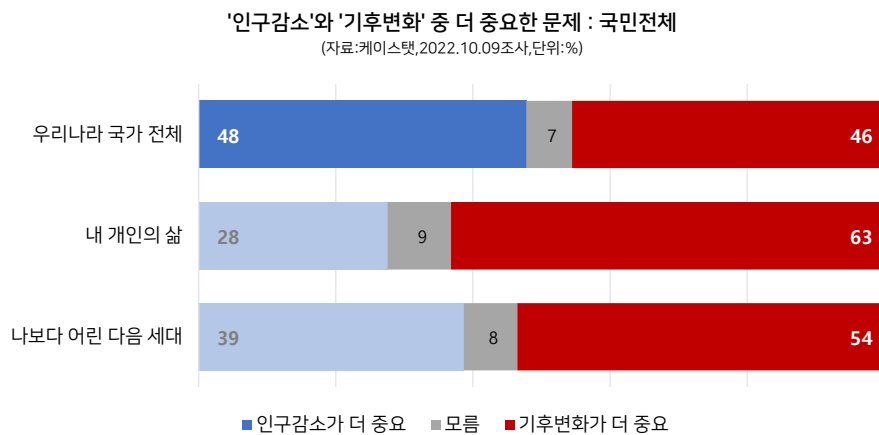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 현실에 대해 모든 지역, 모든 직업군이 3점 미만의 부정적 점수를 매김
 - : '인구감소'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통된 생각으로 분석됨
- ☑ 다만, 지역과 직업에 따라 우려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음
 - : 서울과 TK, PK 지역은 우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인천과 충청, 호남은 높음
 - : 직업별로는 학생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영업자의 걱정이 높음
- ☑ 한편, 이념성향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보수층과 진보층은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중도층은 국민전체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기후변화' 대비 '인구감소' 중요도

□ 국민들, '인구감소'보다 '기후변화' 더 중요하다고 생각

-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대비시켜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우리나라 국가 전체'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요도가 팽팽했으며(각각 48%, 46%), '내 개인의 삶'에서는 '기후변화가 더 중요'(63%)하고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를 생각해도 '기후변화가 더 중요'(54%)하다고 생각함
-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할 때, 인구감소와 더불어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각각에 대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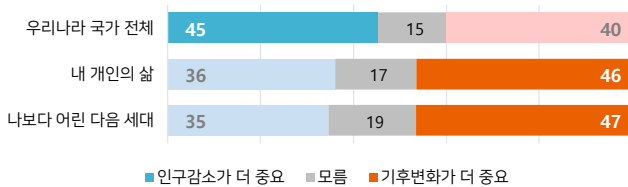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아젠다는 공통적으로 '문제는 지금 만들어지지만, 드러나는 것은 20~30년 후'라는 큰 시차를 갖는 아젠다임
 - : 즉, 지금 현재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 ☑ '기후변화' 아젠다 역시 5~6년 전만 해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국민들의 문제의식 역시 낮았음
 - :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의 강경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함이 없기에 문제의식이 낮았던 것임
 - :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우리나라도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변화'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
- ☑ 이렇게 볼 때 '인구감소'보다 '기후변화'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국민의식은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임
 - : '기후변화'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접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그렇지 않음에 따른 당연한 국민여론임
- ☑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팽팽한 점은 매우 주목되는 지점임
 - : '인구감소'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
 - :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오랜 기간의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정부정책이 축적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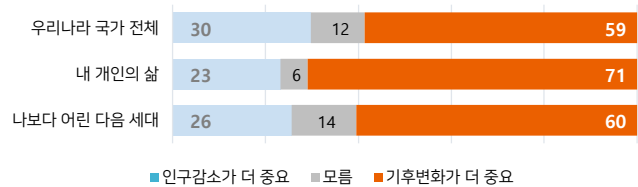
□ '남자 2030 + 5060세대' vs '여자 2030 + 40대' 대비돼

-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론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내 개인의 삶'과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 측면에서는 모두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다만, 60대 이상의 경우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 측면에서 '인구감소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대비되는 측면은 '우리나라 국가전체'로, 이에 대한 우세 의견에 따라 '남자 2030세대 + 5060세대' vs '여자 2030세대 + 40대'로 나뉨
 - '남자 2030세대 + 5060세대'는 '인구감소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여자 2030세대 + 40대'는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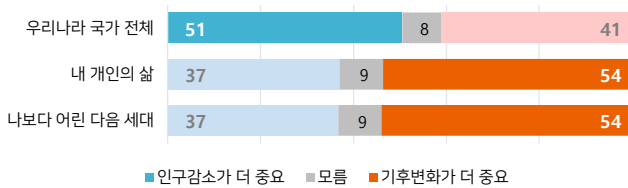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남자 2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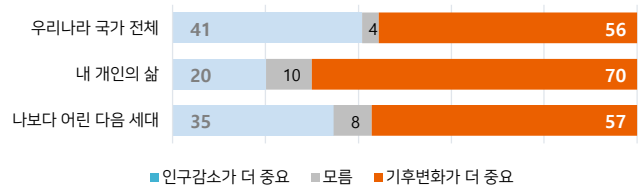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여자 2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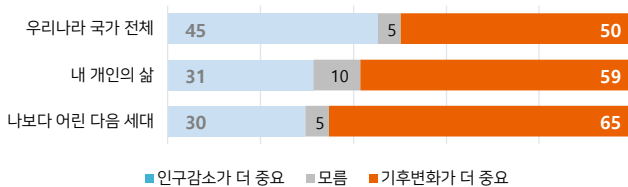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남자 3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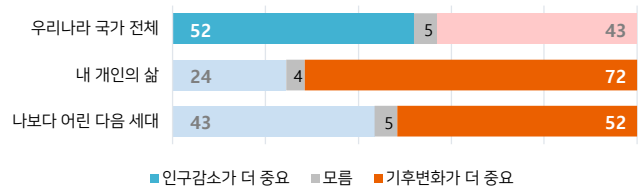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여자 3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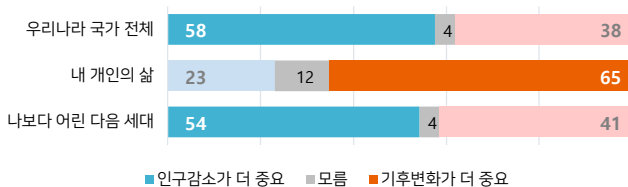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40대 (단위:%)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50대 (단위:%)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60대이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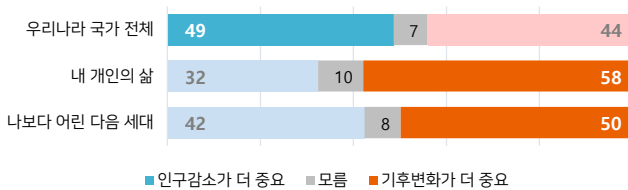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아젠다에 대한 여자 2030세대의 인식이 주목됨
 - : 여자 2030세대는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9%, 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이는 40대의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 50% 보다도 높음
- ☑ 여자 2030세대가 실제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구감소'가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점도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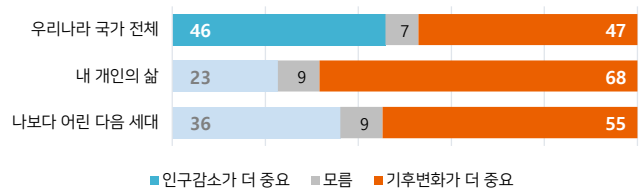
□ PK 외 전 지역, '국가전체' 측면 '인구감소 더 중요' 생각

- '기후변화' 대비 '인구감소' 중요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 개인의 삶'과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 측면에서는 모두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우리나라 국가전체' 측면에서는 P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다만,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기후변화'가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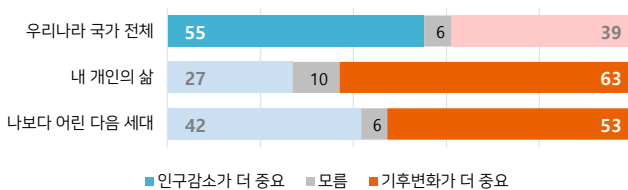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서울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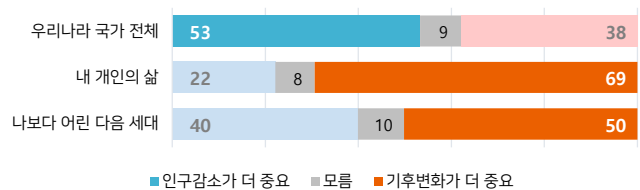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경기.인천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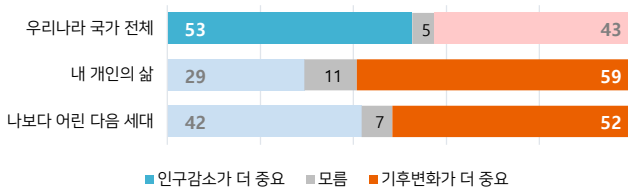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충청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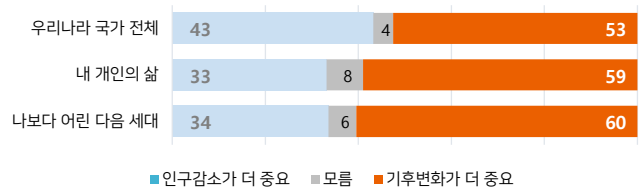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호남 (단위:%)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TK (단위:%)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중 더 중요한 문제 : PK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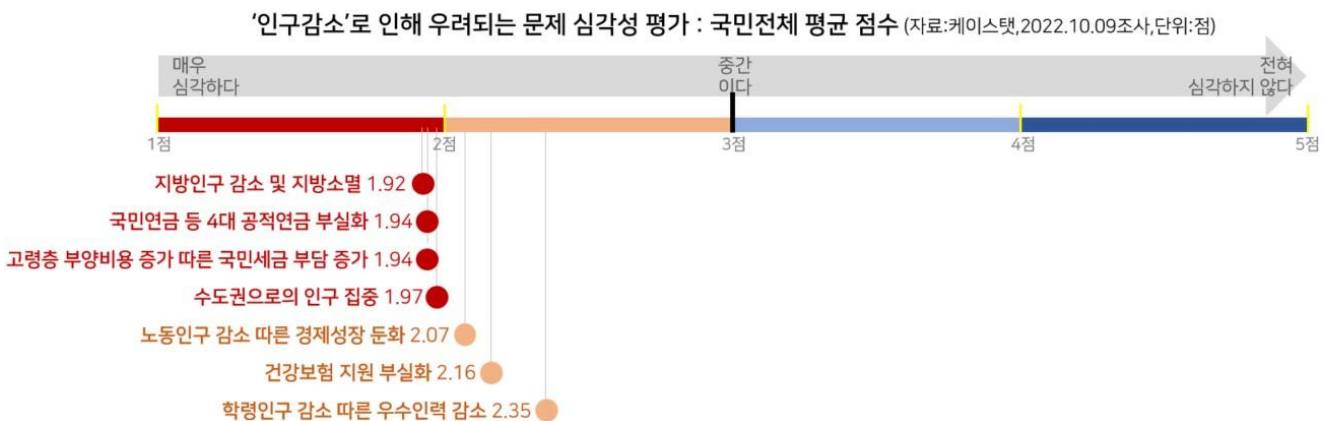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내 개인의 삶'과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인구감소'보다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함
 - : 앞서 성/연령별 인식은 물론 지역별 인식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함
- ☑ 또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측면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임
 - : '인구감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2030세대와 5060세대,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우세함
 - : 이에 비해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자 2030세대와 40대, 그리고 PK 지역에서 우세함
- ☑ 현재까지는 아젠다 영향력 면에서 '인구감소'보다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분석됨
 - : 국가적 차원의 동의는 당위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비해, 내 개인의 삶의 필요는 현실적·실천적 힘이 강하기 때문임
- ☑ 앞으로 '인구감소' 아젠다가 국민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삶' 측면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 '인구감소' 문제별 심각성 평가와 현실적 대안

□ '지방소멸', '공적연금 부실화', '세금부담 증가' 우려 커

- '인구감소'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지방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을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함
 -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입니다. 선생님은 다음 각각의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매우 심각하다' 1점에서 '전혀 심각하지 않다' 5점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지방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이 1.92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부실화'와 '고령층 부양비용 증가 따른 국민세금 부담 증가'가 공히 1.94점으로 뒤를 이음
- 다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1.97점), '노동인구 감소 따른 경제성장 둔화'(2.07점), '건강보험 지원 부실화'(2.16점), '학령인구 감소 따른 우수인력 감소'(2.35점)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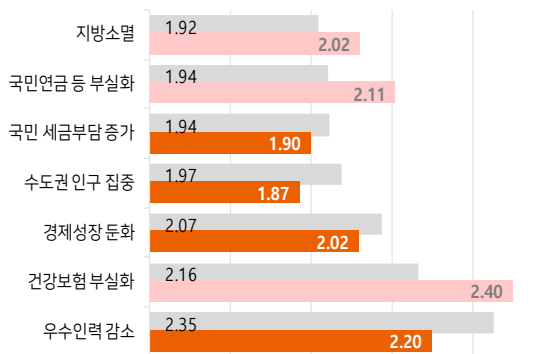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는 우리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핵심 계기가 됨
 - : 공적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 등은 모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음
 - : 이에,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비를 피할 수 없음
- ☑ 그동안 역대 정부 역시 인구감소 흐름에 따라 '연금개혁' 등을 추진해 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인구감소'가 본격 화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 그러나 이를 둘러싼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칫 갈등 확산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어 역대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임
 - :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천명하고, 보건복지부가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는데, 앞서 '내 개인 삶' 측면에서 '인구 감소'보다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보듯,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내가 감수하는데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보임
 - :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이자, 다음 세대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를 형성시켜야 한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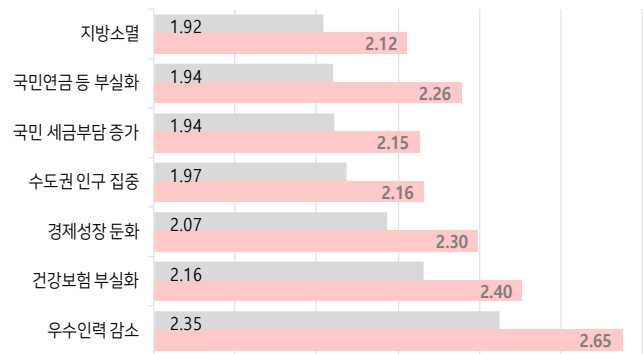
□ 2030세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대비 '심각하지 않다' 인식

- '인구감소'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는 제시된 7개 문제 모두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함
 - 7개 문제 모두에 대한 평점이 중간(3점)에 미치지 못한 채 '심각하다'는 점수대를 형성함
- 그러나 국민전체와 비교하면 점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이보다 높으면 옅은 색 막대이고, 낮으면 짙은 색 막대로 표시함
- 특히 여자 20대와 남자 30대는 모든 문제에 걸쳐 국민전체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점수가 높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뜻함
- 이에 비해 남자 20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4개로 많음
 -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음은 '국민 세금부담 증가'가 심각하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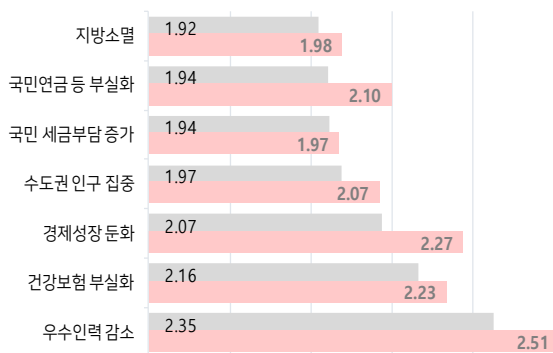
인구감소 따른 우려문제 심각성 평가 : 남자 2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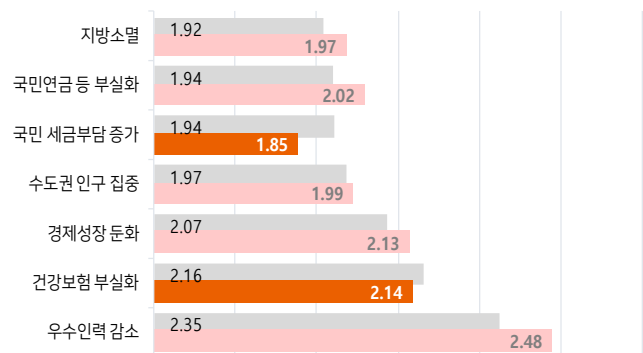
인구감소 따른 우려문제 심각성 평가 : 여자 20대 (단위:점)



인구감소 따른 우려문제 심각성 평가 : 남자 30대 (단위:점)



인구감소 따른 우려문제 심각성 평가 : 여자 3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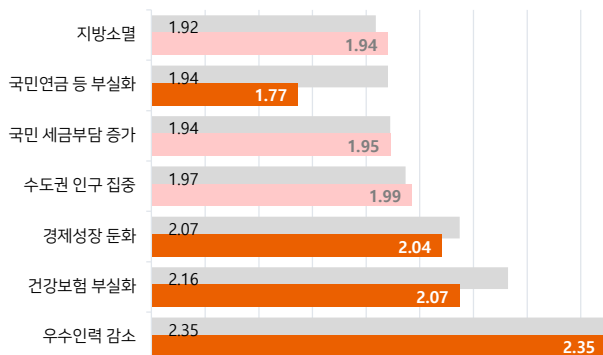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약한 수준의 심각성을 표현함
- ☑ 주목되는 점은 '국민연금 등 부실화'에 대한 의견으로, 2030세대는 국민 전체보다 약한 수준의 심각성을 포함
 - : 심각성 우선순위 면에서도 남자 20대는 '수도권 인구 집중', 여자 20대는 '지방소멸', 30대 남녀는 '국민연금 부담 증가'를 꼽는 등 '국민연금'은 후순위에 있음
- ☑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030세대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금의 여론만 놓고 볼 때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2030세대의 낮은 지지 역시 연금개혁 성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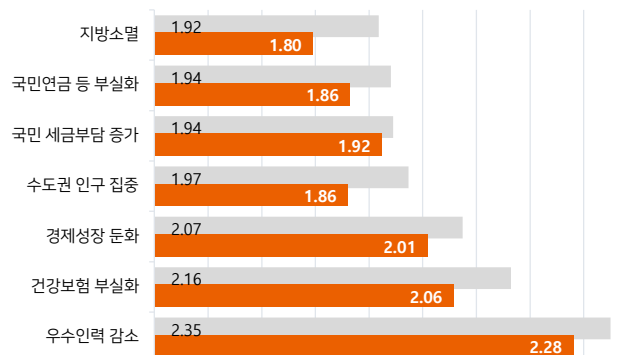
□ 5060세대 '심각성' 강하고, 40대 상대적으로 약해

- 4060세대의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심각성을 살펴보면, 5060세대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강한데 비해 40대는 약한 특징을 보임
- 특히 50대는 7개 문제 모두에 대한 평점이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이보다 높으면 옅은 색 막대이고, 낮으면 짙은 색 막대로 표시함
- 5060세대의 강력한 '심각성' 인식은 2030세대와 대비되며, 40대는 그 중간에 위치한 모습임
 - 40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4개로 5060세대 보다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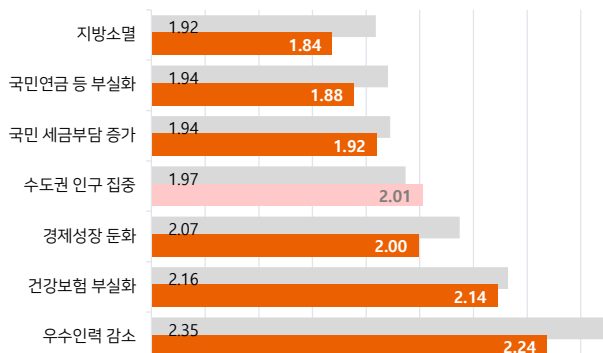
인구감소 따른 우려 문제 심각성 평가 : 40대 (단위:점)



인구감소 따른 우려 문제 심각성 평가 : 50대 (단위:점)



인구감소 따른 우려 문제 심각성 평가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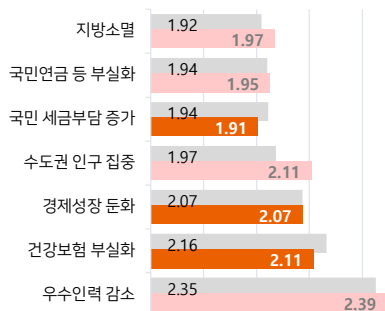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은 주로 5060세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
 - : 2030세대와 40대도 우려되는 문제들 모두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5060세대의 심각성에는 미치지 못함
- ☑ '국민연금 등 부실화'에 대한 여론만 놓고 보면 40대의 심각성이 가장 강함
 - : 40대 1.77점 / 50대 1.86점 / 60대 이상 1.88점
 - :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인 것으로 보임
- ☑ 또한 연금개혁 필요성에 있어 4060세대는 그 심각성 인지에 비례해 필요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등 부실화'에 대한 2030세대의 상대적으로 약한 심각성과 4060세대의 이러한 태도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어 보임
 - : 이번 조사는 물론 각종 사회여론조사에서 보듯 2030세대와 4060세대는 가치관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할지 귀추가 주목됨

□ 서울과 PK '심각성' 상대적으로 약하고, 다른 지역 강해

-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심각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울과 PK 지역은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다른 지역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PK 지역은 7개 문제 모두에 대해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서울은 4개 문제가 국민전체보다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이보다 높으면 옅은 색 막대이고, 낮으면 짙은 색 막대로 표시함
- 다른 지역은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로 '심각성'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TK는 7개 문제 모두가 국민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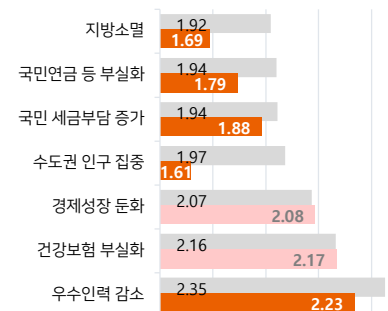
인구감소문제 심각성 평가 : 서울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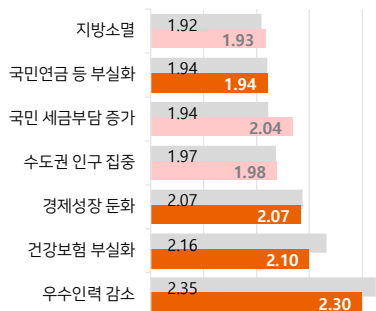
인구감소 심각성 평가 : 경기.인천 (단위:점)



인구감소문제 심각성 평가 : 충청 (단위:점)



인구감소문제 심각성 평가 : 호남 (단위:점)



인구감소 문제 심각성 평가 : TK (단위:점)



인구감소 문제 심각성 평가 : PK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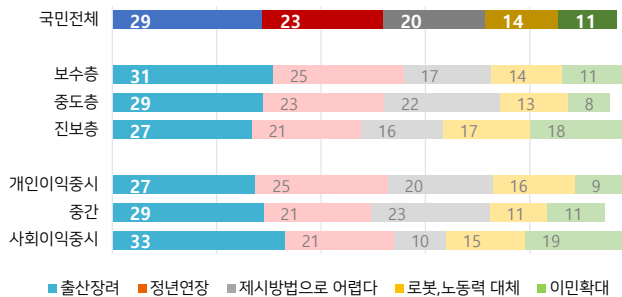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지역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서울과 PK와 같은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약하고, 다른 지역은 강한 특징을 보임
 - :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이 서울과 PK 외 지역에 파급된 결과로 보임
- ☑ 이러한 차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지방소멸'인데, 이에 대해 서울과 PK는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매겨 그만큼 약한 '심각성'을 나타냄
 - : 충청이 가장 낮은 점수로 강한 '심각성'을 보였으며(1.69점), 다음은 TK(1.84점), 호남과 경기.인천 순임(두 지역 공히 1.9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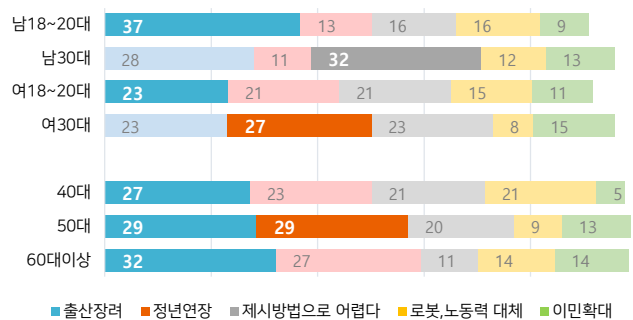
□ 인구감소 따른 노동력 부족 대안, '출산장려'와 '정년연장'

-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 중 '노동인구 부족'에 초점을 맞춰 질문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은 것은 '출산장려 정책 확대'임(29%)
 - "우리나라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다음은 '정년 연장'(23%), '제시된 방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20%),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노동력 대체'(14%), '외국인 이민정책 확대'(11%)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출산장려 정책 확대'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대 △호남 △은퇴.무직자 등임
- '정년 연장'이 1위를 기록한 계층은 △여자 30대 △50대 △충청 △화이트칼라,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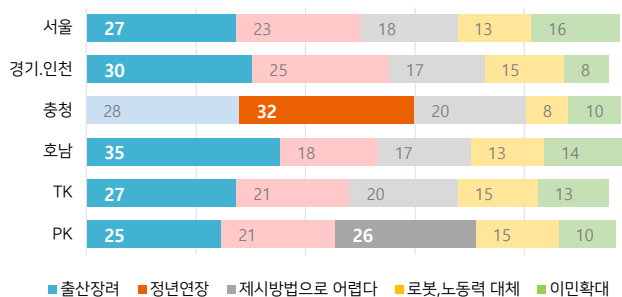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대안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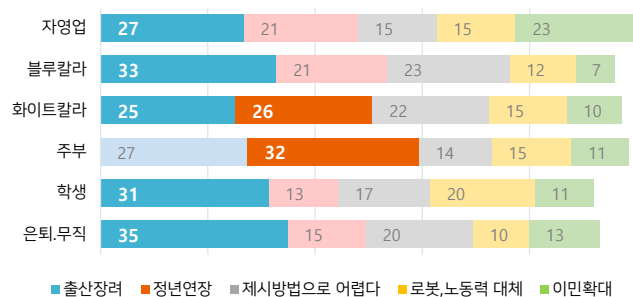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대안 : 성/연령별 (단위:%)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대안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대안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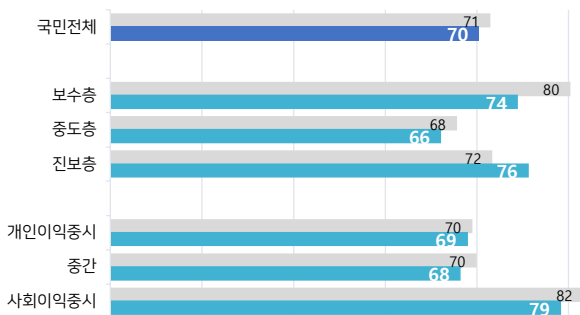
- ☑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남
 - :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2005년 1.09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오히려 낮아짐
 - : 그래도 국민들은 '출산장려 정책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함
- ☑ 또한 '정년 연장' 역시 또다른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윤석열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즉,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방 인구감소' 현실 인식

□ '지방 인구감소', 평소 '관심 있다'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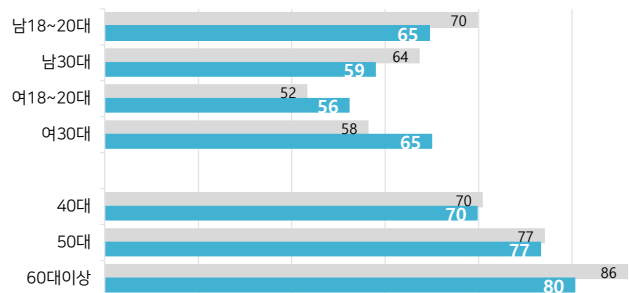
- '지방 인구감소'에 대해 평소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국민 중 70%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관심 없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지방 도시와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지방 인구감소'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관심 있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5060세대 △PK 등임
- 앞서의 '총 인구감소' 관심도와 비교해, '지방 인구감소' 관심도가 더 높은 계층은 △진보층 △여자 2030세대 △충청, 호남, TK, PK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숫자는 '총 인구감소' 관심도임

'지방 인구감소' 관심도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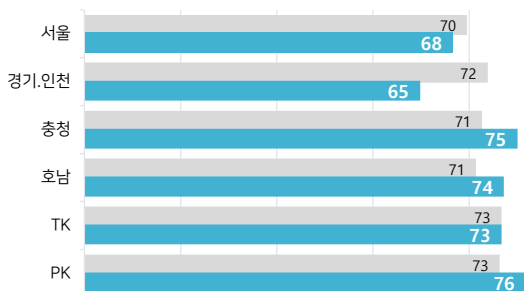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관심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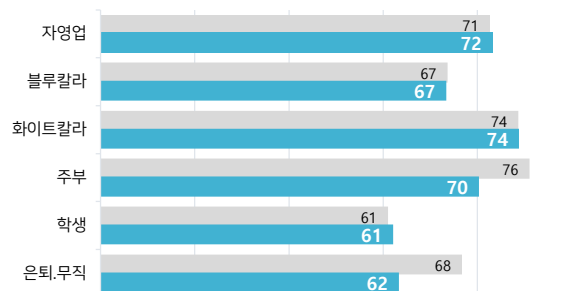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관심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지방 인구감소' 관심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10.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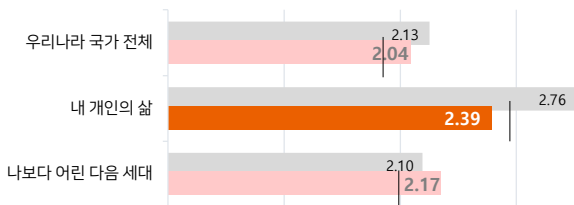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나라 '총 인구감소'는 특히 '지방 인구감소'를 촉진시키는 양상임
 - : 2022년 현재, 정부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임
 - :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통계가 발표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임(자료,한국고용정보원,'지역산업과 고용',2022년 10월11일)
- ☑ 국민여론도 70%가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수도권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점이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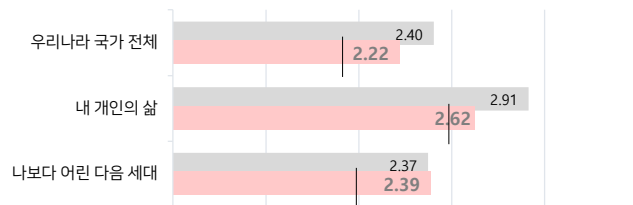
□ 4060세대의 '지방 인구감소' 영향 더 부정적

- '지방 인구감소' 영향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대가 3.0점(나쁘지도, 좋지도 않을 것) 미만의 부정적 점수를 기록함
- 전반적으로 2030세대에 비해 4060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짐
 - 4060세대는 거의 모든 영역(국가, 내 개인, 다음 세대)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해당 영역 국민전체 평점이며,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으면 옅은 색 막대이고, 낮으면 짙은 색 막대로 표시함
 - 회색 막대와 수치는 앞서의 '총 인구감소'에 대한 영향력 평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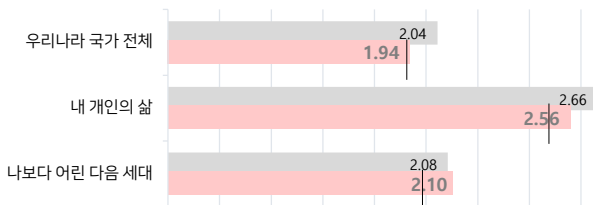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남자 2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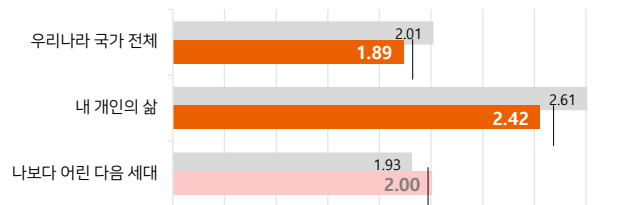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여자 2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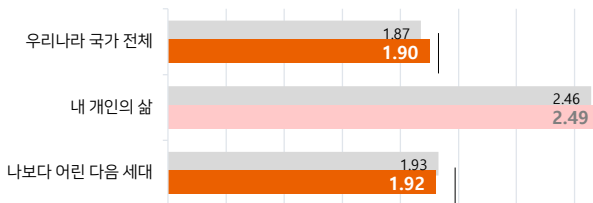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남자 3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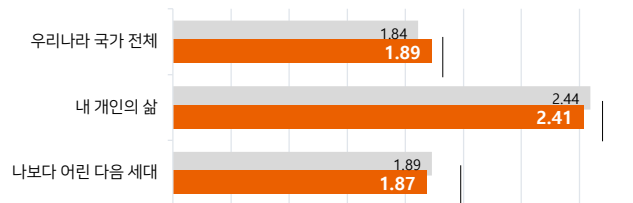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여자 3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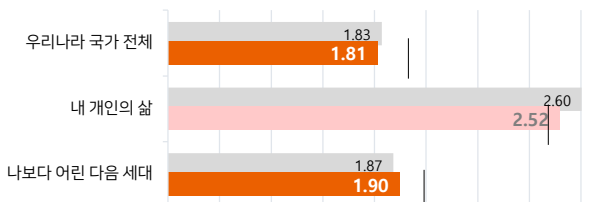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40대 (단위:점)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50대 (단위:점)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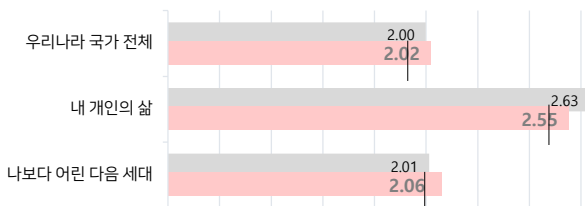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성/연령별 관심은 큰 틀에서 앞서의 '총 인구감소'와 유사함
 - : 2030세대에 비해 4060세대의 부정적 평가가 우세함
- ☑ 그러나 2030세대의 '지방 인구감소' 평점을 '총 인구감소' 평점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수치가 낮은 점수를 기록함
 - : 그만큼 2030세대는 '총 인구감소'보다 '지방 인구감소'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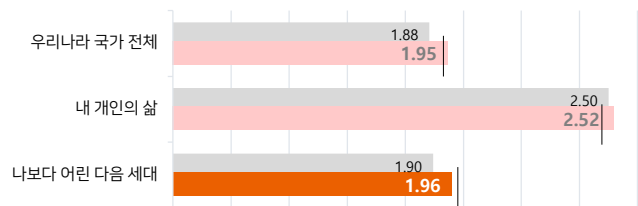
□ '수도권 + PK' vs '충청 + 호남 + TK' 대비돼

- '지방 인구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경기·인천)과 PK가 한 축을 형성하고, 충청·호남·TK가 한 축을 형성하는 양상임
-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PK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고(부정적 영향 악화), 충청·호남·TK는 낮음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해당 영역 국민전체 평점이며,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으면 엷은 색 막대이고, 낮으면 짙은 색 막대로 표시함
 - 회색 막대와 수치는 앞서의 '총 인구감소'에 대한 영향력 평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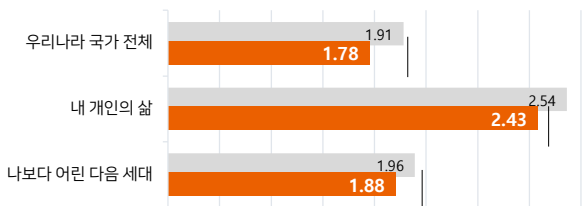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서울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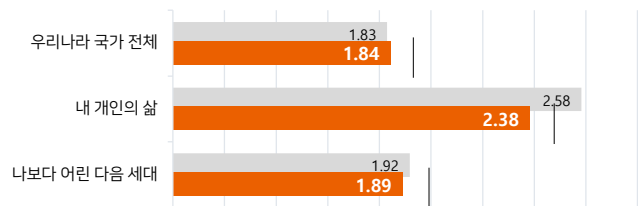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경기·인천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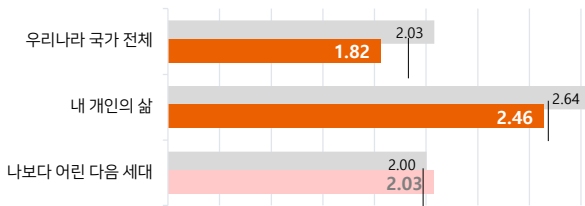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충청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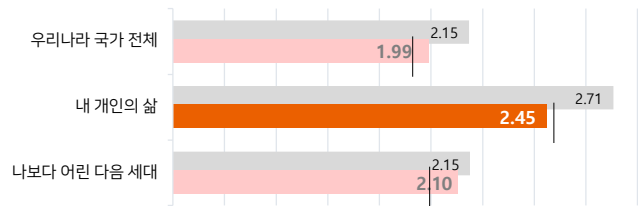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호남 (단위:점)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TK (단위:점)



'지방 인구감소' 미칠 영향 평점 : PK (단위:점)



Kstat Point

- ☑ 언론에서 사용하는 '지방 인구감소'는 현실을 반영한 용어이며, 이 연장선에서 말하는 '지방소멸'도 현실적 진단임
 -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즉 '총 인구감소'가 주로 '지방 인구감소'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임
 - : 여기에 이른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서울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여전히 지방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 ☑ 그러나 '총 인구감소' 현상은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용어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 앞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내역을 보면 대부분 지방이지만 인천 2곳, 경기 2곳 등 수도권도 포함되어 있고, 부산도 3곳이 지정되어 있음
 - : 그런데도 '지방 인구감소' 또는 '지방소멸'을 말하면 그 의도와 달리 오히려 지방 인구감소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임
- ☑ 이에 '소멸위험지역', '인구감소지역', '도시소멸' 등처럼 '지방'이라는 말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 스탓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케이 스탓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 스탓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 스탓 리포트 61호] 발간 안내

케이 스탓 리포트 61호는 『성공 요인』에 대한 국민생각』

이라는 주제로 10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 스탓 10월 사회지표는 10월 20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